

클린스만·황선홍 싸우는 사이 이강인 허벅지 앞뒤 다 다쳤다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이 허벅지를 또 다쳤다. 이강인 차출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황선홍 항저우 아시안게임 감독은 곤란한

PSG "A매치 기간 종료 때까지 치료 받아야"

지난달 오른쪽 햄스트링 이어 이번에 또 부상

처지에 놓였다. 파리생제르맹은 23일(한국시간) 이강인 부상 소식을 공식 누리집에 올렸다. 구단은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이강인은 최소한 A매치 기간 종료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퇴사두근이란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이다. 대퇴사두근 파열은 대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대퇴사두근이 외부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 수축되면서 파열된다. 대퇴사두근의 강한 수축은 슬개골 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치료 기간으로 지목된 A매치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다. 파리생제르맹의 이번 발표로 이강인은 A대표팀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강인 차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클린스만 감독과 황선홍 감독 간 충돌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됐다. 황선홍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지난 3월부터 이강인 차출과 관련해 A대표팀의 양보를 요청해왔다. 황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9월 A매치 기간부터 이강인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소집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9월 A매치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부임 후 첫 승에 목마른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A매치에서 뛰게 한 뒤 아시안게임에 보내겠다고 지난 20일 공

식 발표했다. 이에 황선홍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강인이 허벅지를 다쳤다. 이강인은 지난달 파리생제르맹 이적 직후 오른쪽 허벅지 뒤 햄스트링을 다쳤다. 이후 회복해 경기에 뛰었지만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앞 대퇴사두근을 다쳤다. 이강인이 허벅지 앞뒤를 모두 다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강인을 육신대단 클린스만 감독과 황선홍 감독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이강인으로서 이번 아시안게임은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금메달을 따면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유럽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강인이 조기에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가슴 쓸어내린 KIA... '어깨 불편' 이의리, 단순 염증 소견

지난 22일 수원 KT전에서 어깨 통증 느껴 4이닝만 소화

KIA 타이거즈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날 어깨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이의리가 검진 결과에서 단순 염증 소견을 받았다. 이의리는 22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쏘 KBO리그 KT 위즈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그러나 어깨 불편함을 느낀 이의리는 4이닝(4피안타 5탈삼진 2실점) 만에 마운드를 떠났고, 5회 두 번째 투수 장현식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의리는 병영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다. KIA 구단은 23일 "이의리는 검진 결과 단

순 염증(견쇄관절 부분 염증) 소견을 받았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 말소 예정이며 한 톤 정도 휴식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 길 바쁜 KIA는 선발진의 핵심 이의리가 큰 부상을 피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선발 로테이션 한 톤만 거를 예정인 이의리는 9월 초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이의리는 2년 연속 10승을 달성했다. 21경기에 등판해 100이닝을 던졌고 10승 6패 평균자책점 3.87을 기록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도 최소 1승이다. 이의리는 다음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됐다. 뉴스



안세영, 역대 최초 세계선수권 슐링해 첫발

고진웨이 꺾고 16강 진출...서틀록 여제 방수현도 1993년 준우승 최고 성적

안세영(21·삼성생명)이 2023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첫 경기를 이기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안세영이 서틀록 여제 방수현도 차지하지 못한 세계선수권 우승을 달성하지 주목된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 22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로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세계 26위 고진웨이(말레이시아)를 2-0(21-12 21-14)으로 이기고 16강에 올랐다. 올해 11개 대회에서 7번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을 노린다. 안세영이 우

승에 성공하면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정상에 오른다. 서틀록 여제 방수현도 1993년 은메달, 1995년 동메달에 그치며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혼합 복식 세계 10위 김원호-정나은 조도 32강전에서 아담 홀-줄리 맥퍼슨 조(스코틀랜드)를 2-1(21-9 16-21 21-15)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다. 남자 단식 세계 51위 전현진은 32강전에서 세계 11위 라크사 센(인도)에 0-2(11-21 12-21)로 져 탈락했다. 뉴스

K리그 나가는 아시아챔스리그, 호날두·네이마르·벤제마 뒀다

ACL 본선 조별리그 출전 40개팀 최종 확정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조추첨 예정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인천유나이티드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 카림 벤제마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도 이 무대를 누빈다. 지난 22일 끝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결과 본선 조별리그에 출전할 40개팀이 확정됐다. 조별리그 추첨은 24일 아시아축구연맹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서요섭, 군산CC오픈 2연패 정조준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이재경 선수 수성 노려...고군택, 5년 만에 시즌 3승 달성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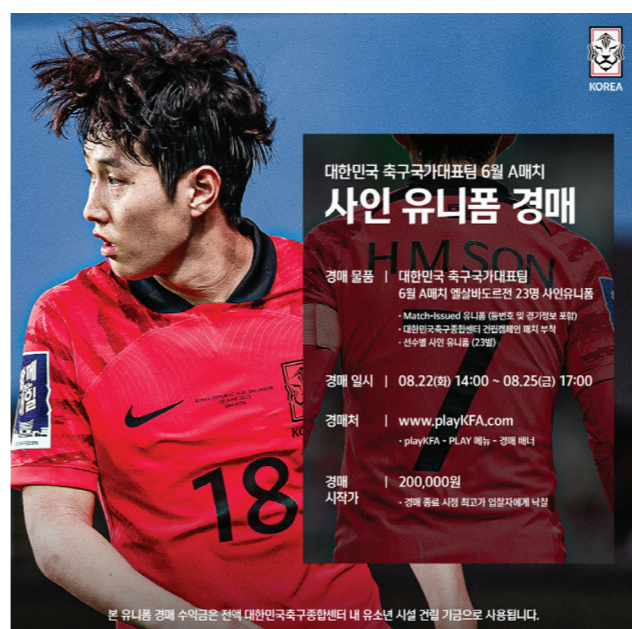
서요섭이 KPGA 군산CC 오픈(총상금 5억 원·우승상금 1억원) 2연패에 도전한다. 서요섭은 오는 25일 전북 군산CC 토너먼트 코스(파72·7442야드)에서 열리는 군산CC 오픈에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서 황인준, 함정우와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한 서요섭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2연패에 성공하면 대회 사상 최초의 선수가 된다. 또한 역대 대회 세 번째 다승자에 도전한다. 서요섭은 "개막전 이후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상반기 이후에 2승씩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2주 연속 우승을 했다. 올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군산CC 오픈은 2023시즌 KPGA 코리아투어의 13번째 대회다. 군산CC에서는 2009~2011년에 이어 2013년부터 이번 시즌까지 14회째 KPGA 코리아투어가 개최되고 있다.

대회는 난이도, 코스 디자인 다양성 등 군산CC의 새롭게 리뉴얼 된 토너먼트코스에서 진행된다. 역대 군산CC 오픈 우승자 6명이 우승 사냥에 나선다. 주흥철(2014·2016년 우승)은 대회 세 번째 챔피언에 도전하고, 2021년 우승자 김동은, 2019년 우승한 김비오, 2018년 챔피언 고석만, 2017년 1위에 등극한 이형준, 서요섭 등 역대 우승자 6명이 우승을 노린다. 데샤프코리아 매치플레이어 우승 후 제네시스 포인트 1위로 올라선 이재경은 선두 수성에 나선다. 이재경은 올 시즌 12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포함해 톱10에 6차례 이름을 올렸다. 제네시스 상금순위는 3위(3억8430만3333원)다. 고군택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군산CC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면 생애 최초 시즌 3승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5년 만에 KPGA 코리아투어 3승을 기록한 선수가 된다. 가장 최근 KPGA 코리아투어에서 시즌 3승을 적어낸 선수는 2018년 박상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리그 우승팀 울산현대와 FA컵 우승팀 전북현대, 리그 3위 포항스틸러스, 리그 4위로 전날 플레이오프에서 베타넵팀 하이퐁을 이긴 인천유나이티드 등 4팀이 출전한다. 한국과 같은 동부 지역에서는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반포레 고후, 가와사키 프론탈레, 우라와 레드 등이 출전한다. 서부 지역 조별리그에는 올 시즌 영입된 유럽 무대 출신 스타들이 대거 출전한다. 사우디 알힐랄에서는 네이마르를 위시해 미트로비치, 밀린코비치-사비치, 콜리발리, 후벵네베스, 아신 부누, 말콤 등이 출전한다. 사우디 알이티하드에서는 벤제마를 비롯해 파비뉴, 은골로 칸테, 조타 등이 나선다. 사우디 알나스르에서는 호날두와 사디오 마네, 탈리스카, 아이메리 라포르트, 브로조비치 등이 출전한다. K리그팀이 결승에 진출하면 서부 지역 준결승을 통과한 팀과 맞붙는다. 동부와 서부가 준결승까지 나눠져 경기를 치르는 탓에 결승전이 꽤아 이들 스타 선수들과 K리그 선수들 간 맞대결이 가능하다. 결승전은 내년 5월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시설 건립 위한 유니폼 경매

지난 3월 A매치 손흥민 유니폼 442만원 낙찰...23명 유니폼 내일 경매 실시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종합센터 내 유소년 시설 건립을 위해 남자 축구국가대표팀 선수 유니폼 경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매 물품은 지난 6월 A매치 엘살바도르전에 출전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23명 유니폼이다. 유니폼에는 선수의 친필 사인이 포함됐다.

경매는 오는 25일 오후 5시가지 대한축구협회 상품·티켓 판매 사이트인 플레이KFA(www.playkfa.com) 경매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0만원이다.호가 2만원으로 종료시점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이번 경매는 지난 7월 1차 경매에 이은 2번째 경매다. 1차 경매 당시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지난 3월 A매치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 10명 친필 사인 유니폼 10벌이 경매됐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유니폼은 최고가인 442만원에 낙찰됐다. 10벌 최종 낙찰가 총액은 1412만원이었다. 1차 경매와 이번 23명 선수 유니폼 경매 수익금은 전액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 유소년 시설 건립 기금으로 기부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도 유소년 시설 건립 기여와 동시에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